

중생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을 통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사이의 긴장을, 거듭남, 곧 중생의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설교의 큰 흐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핵심 진단, 둘째, 거듭남의 본질, 셋째, 성령 역사의 특성입니다.

1. 니고데모의 방문과 예수님의 핵심 진단

먼저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단순한 초신자가 아니라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신분과 권능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고, 존중과 개방성을 가지고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과 정체성에 대해 말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주제처럼 보이는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입에서 나온 말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짜 질문을 아신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속마음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나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친히 아시는 분이시기에, 니고데모가 말하기도 전에 그의 영적 갈망에 대한 대답, 곧 거듭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제가 언제 하나님 나라를 물어봤습니까?”라고 따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라고, 거듭남 자체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이 반응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니고데모의 영적 갈망의 핵심을 찔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말로 다 하지 못한 사정, 심지어 스스로도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 갈망까지도, 주님은 이미 아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진단하십니

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나의 가장 깊은 갈망을 짚으시는 그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다윗 왕조의 영광이 회복되는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왕국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처럼 자기 민족을 해방시킬 영웅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의 표적을 보며 “혹시 이 분이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닐까” 기대하며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의 해방,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영적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외적인 조건이나 민족적 신분이 아니라, “거듭남”이라는 근본적인 내적 변화입니다. 이 지점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그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2. 거듭남의 본질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며, 도덕적으로 조금 나아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번은 육으로 태어나 부모에게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출생은, 우리의 영이 성령에 의해 새로 태어나는 출생입니다. 이것이 중생입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는 표현은 거듭남의 두 측면을 보여줍니다. 먼저 물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씻김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통해 무엇이 죄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게 되고, 그 죄를 미워하며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세례의 차원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죄인 줄 알고, 다시는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아는데, 실제로는 반복해서 그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안 지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함께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죄와 싸울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힘, 말씀에 순종할 힘, 유혹을 거절할 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단지 죄를 아는 수준을 넘어, 죄와 싸울 수 있는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방향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속사람을 새롭게 지으시는 사건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거듭남과 변화가 성령의 역사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라는 말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한편으로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심을 알라”라고 하시지만, 동시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힘을 내라, 열심을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이 아니라, 역할의 구분입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죄와 싸울 힘을 주시는 근원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은혜가 실제로 역사하는 자리, 곧 말씀과 복음이 선포되고, 훈련과 권면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나오는 순종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3. 성령 역사의 특성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비유 안에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의 세 가지 특징이 드러납니다.

첫째, 성령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바람은 우리가 시간과 방향과 세기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바람은 “임의로”, 곧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불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는 인간의 의지와 계산, 프로그램과 기술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도, 어떤 목회자도 “우리 교회 오면 무조건 거듭난다, 이 프로그램만 하면 인생이 무조건 바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설교자는 도구이며, 상담자는 통로일 뿐입니다. 실제로 사람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둘째, 성령 역사는 인간의 이성으로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신비한 역사입니다. 바람의 출발점과 도착점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바람이 분다는 사실은 반드시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고, 과학과 논리로 모두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실재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설교를 듣고도 전혀 변화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한 마디에 인생의 방향이 뒤집힙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어떤 이의 마음을 여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성령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열매로 분명히 드러납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아도 나뭇잎이 흔들리고, 깃발이 펄럭이고, 먼지가 일어나는 결과를 통해 바람을 알듯,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에는 변화를 통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하나님과 말씀을 향한 갈망이 생기고, 관계와 선택과 가치관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바뀌어 갑니다. 솔직함을 앞세워 자기 감정을 다 쏟아놓던 사람이, 공동체를 위한 정직으로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절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중심적이던 사람이 공동체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는 “이 날, 이 시각에 내 안에 무엇이 들어왔다”라고 정확히 설명되지 않을 수 있지만, 분명히 성령의 바람이 그 영혼을 스쳐 지나간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그 거듭남의 증거는 평생에 걸친 변화의 과정 속에서 확인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를 내 감정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와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말씀의 자리까지 나올 힘도, 회개를 깨달을 눈도, 순종을 결단할 마음도,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도 정직하게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는 제 자신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저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제 귀를 열어 주시고,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제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제 인생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거듭남을 사모하는 이 갈망 자체가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역사입니다.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일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